

# HDPE, 내수가격 인상 언제까지...

## 중국 구매거부로 수출 3만톤 감소 ... 농업용 Resin 판매돌입 임박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필름 그레이드 4월 가격은 3월 마감가격과 비슷한 105만원에서 최대 5만원 인상을 110만원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H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3월 HDPE 필름 그레이드가 105만원에 마감돼 4월 가격은 110만원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수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가격은 3월 중순부터 중국이 Bid를 30-40달러 이상 올려 구매하기 시작해 4월 수출가격이 톤당 8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월 HDPE 중국수출은 3만7000톤으로 전월대비 2만9703톤 감소했으나 3월에 4만939톤으로 늘어났고 3월 수출가격(통관 기준)은 아시아가 톤당 799달러, 아프리카 877달러, 중남미 843달러, 유럽 895달러, 오세아니아 836달러, 북미 836 달러 등으로 아시아 수출가격이 톤당 50-80달러 낮았던 것으로 집계된다.

3월 HDPE Spot 가격은 필름, 압출, 타포린 그레이드 평균 CFR FE Asia 844달러, FOB Latin America 901달러, FOB NWE 925달러, CFR FE Asia 861달러로 극동아시아 가격이 가장 낮아 다른 지역으로부터 HDPE를 수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4년 에틸렌(Ethylene) 가격폭등으로 HDPE 오퍼가격이 톤당 900달러에 이르자 Bid를 800달러까지 낮춤에 따라 2월초부터 거래량이 줄었으나 3월부터 재고부족으로 한국과 HDPE를 비롯한 합성수지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HDPE 필름 그레이드의 4월 수출가격이 850달러 이상으로 3월에 비해 50달러 하락한 반면 내수가격은 필름 그레이드를 비롯한 모든 그레이드의 가격이 최대 5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HDPE의 수출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 재고수준이 높아져 내수가격 인상도 힘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3월부터 아시아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다시 구매에 나서고 있어 수출가격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또 전통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중간재라는 특성상 수출가격이 폭등·락 시 내수가격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03년 11월 이후 벌어진 수출 및 내수가격의 격차가 다소 좁아진 상태이다.

국내 합성수지 수요기업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와 대형 수요처들은 자금회전의 여유로 그나마 문제가 크지 않지만 소형 수요처들은 계속되는 가격인상으로 공장가동 중지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HDPE 필름 그레이드는 톤당 105만-110만원, 농업용 필름 105만-110만원, 타포린 105만-100만원, 파이프 110만원, 중공성형 106만-112만원에 고시됐다.

농업용 필름용 Resin은 4월 초 성수기가 임박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으나 생산기업들은 이미 판매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가공기업들의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로 가격이 일반용 필름과 비슷한 시세로 하락했다.

또 중공성형 및 필름 그레이드는 호남석유화학의 4월 정기보수로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1월부터 이미 4월 정기보수에 대비해 Bid-Up에 들어갔고 3월 필름과 중공성형 그레이드 생산에 주력해 4월 정기보수에 따른 내수공급 차질은 없으며, 이미 2003년부터 HDPE 화재로 수출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월초부터 중국과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무역상들은 국내 HDPE 재고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 공급 부족에 따른 여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